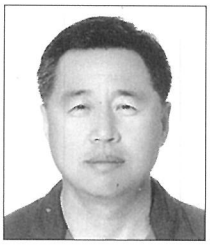
건실한 목장 위한 5가지 마음다짐



김 재 경
바울동물병원장

대학졸업 후, 대동물임상(젖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더니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젖소 진료를 할 그 당시의 낙농규모 및 시설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낙농 산업도 명실공히 세계인들과 겨루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내 낙농산업의 환경은 그리 넉넉지 않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성으로 이 모든 어렵고 고된 길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무수한 목장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원인들로서는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의 부족, 환경, 고령화 등이 있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본고를 통해 필자가 젖소임상진료를 하면서 느낀,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젖소에게 최대한 편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낙농가 모두가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공에게 가능한 한 스트레스(환경, 소음, 운동장 상황, 시설 등)를 덜 주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우공들도 건강한 상태에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는 많은 지식보다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끔 낙농관련 정보를 주변의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르는 것 보다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많이 아는 것이 지나친 아집으로 발전되면 모르는 것보다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낙농가는 '입'보다는 '손과 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내고 목장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수의사, 수정사, 컨설턴트, 착유기 점검요원 등)와 항상 손잡고 서로 힘을 합쳐 목장을 경영해야 한다.

목장은 '유리창'에 비유할 수 있다. 문제없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재미있고 즐겁다. 그러나 한 번 목장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낙농가의 옆에는 항상 전문가들이 있다. 그분들과 잘 상의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이다.

낙농가는 항상 목장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낙농가 자신의 열정 여하에 따라 목장이 발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항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낙농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양관리나 수의질병은 과학이다. 즉, 정확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 그 기본을 무시하고 낙농을 경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항상 겸손하며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문가와 동행하며 즐거운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낙농가들이 목장을 경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면을 통해 낙농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목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 드린다.